



고향 가는 길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문득 자기 자신과 삶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 불교에서는 중생은 자기 한계상황(境界狀況)을 느껴야 이 현상적(現象的)인 세계만 보면 우리 중생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인생 고해에서 헤매다가 만다고 가르치고 있다. 근본을 떠난 우리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잠시 눈

막이 갈라지고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서 모든 행복을 버리고 자신의 손에 따라 근본지리를 찾아서 새처럼 자유스럽게 고향 가는 길을 향유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는 고향은 어디인가. 향유할 수 있는 고향은 어디인가. 향유할 수 있는 고향은 어디인가. 향유할 수 있는 고향은 어디인가.

탐욕·고해를 건너 자유의 세계로

을 뜨고 주변을 보고 한걸음 밖을 나가도 모두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성간의 욕망에 눈이 어둡고 명예나 식욕 계층에 얽매어 있다.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방이다. 우리 모두 고향 가는 길에서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성찰해 보고 자기 반부(反弱)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향 가는 길에 함다운 부모가 되고 훌륭한 스승, 총명한 사위인, 직장인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함다운 부모 스승 사위인 직장인이 될 수 없다. 내게 있어 '고향 가는 길'은 화두이다. 그래서 그 길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내일 수 밖에 없다. 이 길은 누가 대신해서 가주는 길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나 자신과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만 귀중한 생명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권력을 가지면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고향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영만 <불교 목판화>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⑤ <글>

불행듯 지난 백일기도 때 만난 인연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젊은 허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며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던 그 할머니의 서림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큰 맘이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내 자식을 잘 되게 해 주소서'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뿐이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이 할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순교한 사람, 그것 역시 항상 번뇌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대지대비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어찌 허상이겠는가?

"결혼이 환상은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많고 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을거예요." 바빠 움직이는 내 손목에 걸린 합장주머니를 신기하게 두 번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도 예뻐했다.

지난해 9월 자그마한 상점을 한다는 동계부부는 이른 새벽 신부화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내 간 소리를 듣고 있었다. 수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슬이 새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이 아직도 남아 있을 때였다. 그날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날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날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문득 작년 초 우리 미용실 손님이었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부부와,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잠시 귀국해 결혼식을

올린 후 다시 선교사업을 위해 아프리카로 건너간 어느 선교사 부부가 환한 얼굴로 화장거울에 비쳐졌다. 이들 모두가 처음 미용실에 찾아 왔을 때만 해도 우리의 뜻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려 온 방문객에 불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최소 70-80 만원 정도의 경비를 거쳐 대인배 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있었는가?

무로 드레스 대여와 신부화장을 받으러 오는 부부는 처음에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했던가. 그런 연유로 우리 미용실 직원들이 그토록 정성들여 해오던 봉사활동은 표현에서 화력충 창애자학교로 옮겨졌다. 어차피 이곳저곳 부부들 보아야겠다는 것이 처음의 뜻이었으나, 창애자학교의 아이들은 포천 아이들보다 더욱 불우한 이웃이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다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행복을 지은 죄도

삶의 행복은 내마음속에 있으며 내 속의 부처님은 세상 모든것을 품에 안으라고...

살보다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실망감이더 들어 애초의 뜻을 꺾어두고 있었다. 우리 생각과 뜻에 훨씬 '불행'과 결혼관련 잡지에 서비를 들어 광고까지 내게 되었다. 어차피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었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던 포천의 교우관만해도 그랬다. 교우관 임장이 우리가 가져다 준 것들을 다시 빼앗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꺼내버려도 제대로 챙겨

하나 없이 받고 있는 그들에게 머리나 다듬어 주며 교차 및 시간 동안 함께 하는 우리의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성한 자와 평안한 속제인지도 모른다든 회색감이 지금도 나를 우울하게 한다.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 아이들이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한 그들의 표정은 이따금 생활의 피로와 권태를 느끼는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한다.

무로 드레스 대여와 신부화장을 그리고 창애자학교 방문이라는 봉사활동은 더러는 순수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주위의 감시 못

주부신행담

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다. 지하 5층까지 단칸방에 세식구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주택에 무슨 봉사활동이라는 부의 비아냥이다. 혹은 무슨 공중이숙이 있어 그러지 않는다는 의혹도 받는다. 때로는 속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는데 대한 고마움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어리석고 좁은 소견으로 부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런 나를 어찌해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내 신념은 모두 부처님의 뜻이며 그 속에서 나는 또 다시 부처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에 안으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어쩔만 글과 단편으로 내가 느끼는 세상을 표현해 보았다. 물론 나보다 더 진실한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러한 글을 쓰는 내 자신에게 소중한 마음을 더하게 한다. 하지만 내게 이 글을 쓰게 한 단 한가지 이유는 부처님의 불교에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해 보자는 욕심에서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 수 있

년소녀가장들을 위한 미용학교를 세워 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용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활자로 키워내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러한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래왔듯이 부처님의 보살림이 계속된다면 분명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삶의 행복, 그것은 분명 내 마음속에 있으며 그 마음에 항상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한 언제나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화자 <서울 종로구 홍지동>

And how, young householder, does the Aryan disciple protect the six quarters? The following should be looked upon as the six quarters. Parents as the east, teachers as the south, wife and children as the west, friends and companions as the north, servants and employees as the nadir, recluses and brahmins as the zenith. 그러면, 젊은 장자여, 상인의 재자가 어떻게 육방을 수호하는가? 다음의 사람을 육방으로 생각하라.

부모는 동쪽, 스승은 남쪽, 아내와 자식은 서쪽, 친구와 동료는 북쪽,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방향, 수도자나 바라문은 뒷방향. A child should minister to his parents as the eastern quarter in five ways. Once I was supported by them; now I will be their support. I will perform those duties they have to perform. I will maintain the lineage and tradition of my family. I will look after my inheritance, and I

will give aims on behalf of them. 자녀는 다섯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동방으로 모셔라. 옛날엔 내가 그분들의 부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분들의 부양자가 되리라.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를 내가 다하리라. 나는 내 가족의 혈통과 전통을 유지하리라. 나는 물려 받은 재산을 돌보리라. 나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모셔하리라. Parents thus ministered to by their children as the eastern quarter, show their love for them in five ways. They restrain them from evil. They direct them towards the good. They train them to a profession. They arrange suitable marriages for them, and in due time, they hand over the inheritance to them.

과 전통을 유지하리라. 나는 물려 받은 재산을 돌보리라. 나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모셔하리라. Parents thus ministered to by their children as the eastern quarter, show their love for them in five ways. They restrain them from evil. They direct them towards the good. They train them to a profession. They arrange suitable marriages for them, and in due time, they hand over the inheritance to them.

이렇게 동방으로 봉사받은 부모들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자녀를 선으로 이끈다. 그들은 자녀를 교육시켜 정당한 직업을 갖게 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알맞은 혼처를 구해주며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recluse' 은둔자, 출가한 수도자. 'nearer' 모셔다, 봉사하다, 공양하다. <박미영기자>

깨우친 목석보다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범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범어
대행스님께서 '범어' 속에 '장경' 속에
같은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살아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편집: 한마음선원
· 제작·보급: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전통 100년, 도전 100년 1896-1996

환경관리 국내 1위 두산그룹

'94 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선정

두산그룹은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강토사랑, 지구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4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최다선정(16개 사업장)된 두산그룹이 이 나라 제일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두산은 예방위주의 철저한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MS))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망라하는 환경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토사랑, 지구사랑 - 두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현황
두산상사 금산공장 동양매주 서울공장, 이천공장, 광주공장, 구미공장, 경산공장 두산음료 서울공장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군포공장, 영남공장 두산전자 중랑공장 종합식품 이천공장, 무천공장 두산제관 광주공장 오비씨그룹 이천공장 백화 군산공장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1번 1111 1111 지킴이운동·종가집
천세보호운동·나무 비료주기운동·
환경적자 태포운동 등 11번의 환경보호
운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